

루푸스 환자에서 급성 신우신염에 의해 합병된 급성 신부전증과 허혈성 장질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옥, 최윤석, 윤선애, 송호철, 최의진, 방병기

급성 감염은 루푸스 환자에서 루푸스 활성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급성 감염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루푸스 환자에서 발생하는 허혈성 장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연구들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뱃뇨와 복수증이 나타나 루푸스 검사와 신조직 검사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결과 기존의 루푸스 질환에 신기능 악화를 동반한 루푸스 신염과 허혈성 장질환이 합병되었음을 발견하고 스테로이드와 cyclophosphamide를 병합투여하여 호전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19세 여자 환자가 1일간의 고열 및 우측 측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우측 척추 늑골각에 심한 압통과 뱃뇨로 급성 신우신염을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항생제 투여 3일 후 고열과 우측 측복통은 호전되었으나 호흡곤란과 복수를 동반한 복통이 나타나고 5병일에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5.7 mg/dL로 증가하였으며 혈소판은 65,000/mm³으로 감소하였다. 항핵항체 양성, anti-dsDNA 321 IU/ml, 혈청 보체는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다. 복수검사서 백혈구는 860/mm³, 단백은 2.9 g/dL였으며 세균 배양검사는 음성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다량의 복수와 함께 대장과 소장 벽이 심하게 두꺼워져 있어 허혈성 장질환이 확인되었다. 신조직 검사서 제 4형의 루푸스 신염이 확인되었다. 루푸스 질환에서 급성 신우신염에 의해 급성 신부전 증을 동반한 루푸스 신염과 허혈성 장질환이 합병된 것으로 생각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methylprednisolone과 cyclophosphamide를 병합투여하였다. 스테로이드와 cyclophosphamide 병합투여 후 복통과 복수 등의 허혈성 장질환의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신기능과 혈소판수가 정상으로 회복하고 루푸스 활성지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초음파유도하 침생검으로 진단된 후신성 선종 1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박원석, 황성하, 장성희, 박주현, 이은희*, 김해수, 이종민, 김석영, 방병기

서론: 후신성 선종(metaneprhic adenoma)은 최근에 알려진 신장의 양성 선종으로 조직학적 소견이 매우 특징적이므로 광학현미경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후신성 선종은 매우 드문 양성 종양으로 세계적으로는 약 100개의 증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예만이 보고된 바 있다.

증례: 44세 여자 환자가 우측 복부 동통 및 발열이 있어 본원에 방문하였으며 환자는 복부 검사상 우측복부의 경한 압통 이외에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3.8 g/dL, 헤마토크리트 42.2%, 백혈구 5,700/mm³, 혈소판 255,000/mm³였고 생화학적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소변검사상 고배출 시야에서 6-10의 백혈구와 많은 세균이 관찰되었다. 복부 초음파 및 전산화 단층 촬영상 3.5cm 가량의 원형의 경계가 좋은 저음영의 낭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신동맥 조영술상 과혈관성이나 조영증강은 보이지 않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유도 하에 낭종 흡인술을 시행하여 적색질과 아교질 모양의 회백색의 조직을 얻었다. 광학현미경상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작고 균일한 소방 구조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였다. 종양세포는 세포질이 거의 없고 림프구보다 약간 큰 원형 내지는 난원형의 핵과 작고 불명확한 핵소체를 보였다. 세포분열이나 비정형성 세포는 없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상 EMA에서는 음성, Cytokeratin 염색에서는 양성 소견을 보였다. 후신성선종 진단하에 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육안소견상 종괴는 비교적 명확하였고 크기는 4.0 x 4.0 x 2.5 cm 였다. 절단면은 회백색 혹은 적갈색을 띠었고 종양의 상단부는 용혈피를 보였다. 명확한 막의 형성이나 석회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 종양세포는 유두상 구조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사중체도 관찰되었다.

결론: 후신성 선종은 신장에 생기는 종양 중 매우 드물고 신세포암종이나 윌름 종양으로 오진될 가능성이 많다. 이 종양을 초음파유도하에 실시한 침생검에서 진단하여 보고하는 바이다.